

# 이방에서 온 친구들

(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 함께 살기

## 난민들의 특징

### 1. 일반적 상황

- 1) 난민이란 단어자체에 이미 편견이 배어 있다는 걸 난민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한국에서 난민법이 제정된 바람에 외국에서는 한국이 난민에게 허용적이라는 오해가 많다. 난민 인정을 받는 경우는 1% 정도다.
- 2) 정치적 박해로 한국에 온 이들이 다수. 대부분 고학력이다. 어려운 처지지만 자기 위엄을 지키고 사는 이들이라 힘든 상황에서 누추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 3) 신앙심이 깊어 형편이 좋은 한국인들보다도 고통을 수용하고 감내하는 인내심이 크다. 사람을 여유롭고 느긋하게 대한다. 당당하고 품위 있다.

### 2. 난민지위

- 1)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인도적 체류자 자격인 경우가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 제한이 심하다. 공식적인 취업이 거의 어렵다.
- 2) 인도적 체류자 자격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 3. 형편과 어려움

- 1)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치료의 어려움이 크다.
- 2) 학생들은 신분과 관계없이 교육의 기회는 부여된다. 졸업 후가 문제이다.
- 3) 극심한 기후위기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이 있다.

- [참고] 1. **사단법인 한국알트루사**는 정신건강사회운동단체이고, 구호단체가 아니어서 관계 맺기에 주력한다. 지원규모는 크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장학금, 도시지원비, 냉난방비, 치료비, 생일과 명절, 입학과 졸업을 챙겨 선물하고 카드를 전달한다. 그리고 **알트루사 어린이청소년캠프**에 함께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2. **화성외국인보호소** 장기수용 난민을 위해 전화카드와 외국어 소설 선물 등 갇힌 이들은 전화카드가 생명줄이다.
3. 아래의 배열 순서는 한국알트루사 담당자와 의논하여 형편이 어려운 가족을 우선순위로 배정하였다.

	이름	성별	나이	국적	거주지	종교	언어	형편과 사정	참고사항
1	쥬**	여성		콩고	평택 한국거주 20년	기독교	영어 불어 능통	<p>- <b>형편:</b> 10여년 전부터 백혈병으로 치료비, 응급실 행, 약값 등 병원비가 많이 든다. 지원하는 단체들이 간간히 있었지만 치료비가 늘 부족하다. 신앙심이 깊어 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 백혈병으로 몸이 아파서 멀리 가는 것을 어려워한다.</p> <p>- <b>가족:</b> 딸, 한국태생, 올해 한양대 건축학과 입학, 한학기 등록금 장학생이다. 당당하고 반듯하고 사려 깊은 아이로 자랐다. 건축가가 되고 싶어한다.</p> <p>- <b>교육관:</b> 흑인을 차별하는 한국인들의 시선을 알지만 흑인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아이에게도 가르쳤다.</p> <p>- <b>하는 일:</b> 레게 머리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한다.</p>	<p>미혼모</p> <p>교회지원</p> <p>30만원</p>

2	유스라	여성	48 (75)	이라크	인천 한국거주 10년	무슬림	아랍어 영어 (약간) 한국어 (약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도적 체류자</b>, 국어교사 교장 출신, 기독교인을 숨겨주고 발각되어 배신자로 찍혀 살해위험을 받은 후 전직 경찰 남편은 호주로 가고, 유스라는 아이들과 한국으로 왔다. 비자가 해결되지 않아 가족이 10여년 헤어져 살았다. 남편은 3년 전 이혼하고 호주에서 새가족을 꾸렸다.</li> <li>- <b>가족</b>: 고3, 고2 아들 중2 딸, 어려서 한국에 와서 한국 학생과 다름 없다. 고3 아들은 간간이 아르바이트, 둘째 아들은 중학교 시절 축구를 잘해서 상도 받았으나 축구를 계속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 축구는 포기했다.</li> <li>- <b>생계</b>: 2023년 에어컨 부품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과 손목에 부상을 당했다. 인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치료비는 회사가 지불했으나 충분치 않았다. 지금까지 다른 일을 못하고 있다. 2024년 2월 손목핀 제거 수술을 했다.</li> <li>- <b>교육관</b>: 아이들을 교육하고 책임지려는 모성과 책임감이 강하다. 아이들에게 권위있는 어머니다.</li> <li>- <b>난민지위</b>: 기독교난민구호단체 피난처와 변호사단체 어필의 도움으로 난민재심 중이다.</li> </ul>	한부모 가정 난민재심 중
								교회지원	
								30만원	
3	아미**	여성		라이베리아	동두천 한국거주 10년		영어 한국어 (약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도적체류자</b>: 청소년 시기 할레를 피해 심터로 탈출, 아버지는 군인이었으나 처형당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출입국관리소에서 난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결혼한 남편과 2023년 폭행으로 이혼했다.</li> <li>- <b>가족</b>: 성공회대학생 딸과 한국에서 출산한 7세딸, 10세 아들이 있다.</li> <li>- <b>특이사항</b>: 동두천에서 난민공동체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난민공동체에서는 겨울에 눈을 슬고 노인과 어린이를 위해 봉사하고 팬데믹 때는 마스크를 만들어 기증하기도 했다.</li> <li>- <b>건강상태</b>: 최근 허리가 아파서 고생한다.</li> </ul>	한부모 가정 이혼
								교회지원	
								30만원	
4	아담	남성		수단	답십리 5년전 난민인정	무슬림 → 기독교 개종	영어 한국어 (능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난민인정</b>: 수단에서 대학생이었는데 정치범으로 몰려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와서 우울증이 심했고, 한국에서도 흑인과 난민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이다. 할머니에게서 자랐는데 몇 년 전 돌아가셨다. 수단의 분쟁상황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더 우울해 했다.</li> <li>- <b>특이사항</b>: 시인으로, 21년 유엔난민기구 다큐멘터리, "기록(Writing to Reach You)"에 출연했다. 주위 난민을 잘 살피고 챙기고 소개한다. 팬데믹 때는 후원을 모아 수단에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펼쳤다.</li> <li>- <b>생계</b>: 미혼으로, 번역일, 공장일로 생계를 유지한다.</li> </ul>	5년전 난민인정
								교회지원	
								보류	

5	도르카스	여성	공고	안산 한국거주 15년 5년전 난민인정	기독교	영어 불어 한국어 모두 능통	- <b>난민인정:</b> 대학원을 졸업한 간호사였는데 정치적 박해 때문에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 콩고 남성과 결혼, 남편은 신학을 공부, 부부는 깊이 있고 성숙한 어른이다.	5년전 난민인정
							- <b>가족관계:</b> 한국태생의 중1아들, 초4, 3세 딸이 있다.	교회지원
							- <b>특이사항:</b> 아들은 초등학생시절 씨름을 시작해서 씨름천재로 불렸다. 난민이라 전국체전에 참여하지 못했다. 교사들이 협회에 탄원하여 중학생까지 출전 자격이 주어졌으나 그 이상은 허가 받지 못했다. 축구로 전환하려 고민 중이고, 뉴스보도에 나왔고, 24년 tvn 유퀴즈에 출현했다. 아이들은 구김살 없고 밝고 당당하다.	30만원
- 현재, 안산 다문화센터에서 이주민들을 위해 일한다.								
6	야무드	남성	20대	말리	의정부	영어 한국어 능통	- <b>난민지위:</b> 한국에 유학 오고 난 후 말리의 세관원이었던 부모님이 정치적 고초를 당했다. 그 후 난민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17개월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장기 수용된 적이 있다.	한국여성과결혼
							- <b>특이사항:</b> 화성외국인보호소 장기 수용 난민을 면회하는 단체 '마중'을 통해 알트루사와 연결이 되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보호소에서 나왔으나 인도적 체류 자격도 얻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고, 보호소 감금의 위기도 여러 번 있었다.	교회지원
							- <b>가족관계:</b> 2023년 2월 한국여성과 결혼하고, 4월에 첫 아이 출산 예정이다.	30만원

마태복음 25:35-40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혈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혈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